

이상원 | 부전문위원 (제 6081)

■ 주요 뉴스: 미 연준, 테이퍼링 가속 결정에 이은 금리인상 시점 구체화 작업

- ECB 정책위원, ECB의 인플레이션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 지적
- 영란은행(BOE), 12/16일(+15bp)에 이은 추가 금리인상 예고
- 터키, 12월 추가 금리인하 이후 환율불안 심화(17일 장중 최대 8% 약세)

■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 우려 및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소화 주가 하락[-1.0%], 달러화 강세[+0.7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여건 위축 우려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EU 국가들의 코로나 관련 규제 조치 강화로 0.6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위험회피(Risk-off) 분위기 속에 상승
유로화 가치는 0.8% 하락. 엔화는 강보합(0.04% 강세)
- 금리: 미국은 빠른 테이퍼링이 금리인상 폭을 좁힐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
독일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3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7.7원, +6.9원) 0.6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2/17일	12/16일	전일대비			12/17일	12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20.6	4,668.7	-1.03%	국제 금리 10y	미국	1.40%	1.41%	-1bp
	유럽	473.90	476.56	-0.56%		독일	-0.38%	-0.35%	-3bp
	중국	3,632.4	3,675.0	-1.16%		한국	21bp	21bp	0bp
	일본	28,546	29,066	-1.79%	CDS 5y	중국	42bp	42bp	0bp
	한국	3,017.7	3,006.4	0.38%		EMBI+	-	391bp	-
환율	달러지수	96.68	96.04	0.66%	위험 지표	VIX	21.57	20.57	4.86%
	유로화	1.1240	1.1330	-0.79%		WTI유	70.13	72.38	-3.11%
	엔화	113.63	113.67	0.04%	원자재	구리	428.9	430.05	-0.27%
	위안화	6.3754	6.3683	-0.11%		금	1,798.1	1,799.4	-0.07%
	원화	1,180.9	1,183.9	0.2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 연준, 테이퍼링 가속 결정에 이은 금리인상 시점 구체화 작업

-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, 내년 3월 자산매입을 종료하면 필요한 시점에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얻게 될 것이며,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경기 사이클 상 긍정적인 국면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
-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부족 현상은 미국 경제가 현재 달성할 수 있는 최고 고용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할 경우 2~3회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평가
- 월러 연준 이사, 미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은 경제 활동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는데, 완전고용 근접,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'22.3월 FOMC에서의 정책금리 인상이 정당화 될 것이며 보유자산 축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정책위원, ECB의 인플레이션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 지적

-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(사임 예정), ECB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발언. 인플레이션 위험은 유로존 전역에 걸쳐 상방으로 치우쳐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은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

■ 영란은행(BOE), 12/16일(+15bp)에 이은 추가 금리인상 예고

-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,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 수준에 유지될 경우 금리를 큰 폭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.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지 낮출지는 불명확하며, 양 방향 모두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

■ 영국,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반한 내수 회복세 시사

- 통계청(ONS), 1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.4% 증가했다고 발표. 예상(+0.8%)과 달리 전월(+1.1%)보다 크게 증가. 의류 판매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. 한편, 소매판매 디플레이터*는 6.0% 상승하며 내년 가계 가처분소득 위축을 시사

* 소매판매 통계에서 추출한 물가 상승률 지수

■ 터키, 12월 추가 금리인하 이후 환율불안 심화

- 터키 중앙은행(CBRT)이 16일 정책금리를 1%p 추가 인하(15% → 14%, 9월 이후 총 -5%p)한 이후, 리라화 약세가 가속화(15일 -2.9% → 16일 -5.5% → 17일 장중 최대 -8.6%). 17일 對美환율이 17리라를 상회하자 CBRT는 이번 달 5번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

■ 러시아 중앙은행(CBR), 정책금리 큰 폭 인상

- 17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년 7번째 정책금리 인상 단행(7.5% → 8.5%, +100bp). 금번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 하에서의 누적 인상 폭이 +4.25%p에 달하지만, 제반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되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부언

■ 헝가리 중앙은행(NBH), 정책금리 추가 인상 예고

- 칸드라츠 중앙은행 부총재, 이미 14일 정책금리를 30bp 인상(2.1% → 2.4%)한 바 있으나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기 위해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. 아울러 인플레이션과의 오랜 싸움에 준비해야 하며 타이밍과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언급

■ 일본은행(BOJ), 소규모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 발표

- 17일 금융정책결정 회의를 통해 수익률곡선관리_{YCC}를 비롯한 완화조치 패키지를 대부분 동결했으나, 일부 자산매입 항목(회사채, CP)의 총액 한도를 낮추는 소규모 테이퍼링을 단행. 단, 구로다 총재는 미국·유로존의 정상화 조치와는 다르다고 부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17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(전년비): +4.9%, 10월(+4.9%), 예상치(+4.9%)
- 독일 12월 IFO 기업환경지수: 94.7, 11월(96.6), 예상치(95.3)
- 영국 11월 소매판매(전월비): +1.4.%, 10월(+1.1%), 예상치(+0.8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20 현지시각 기준)

- 중국인민은행 최우대 대출금리(Loan Prime Rates),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,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등 발표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